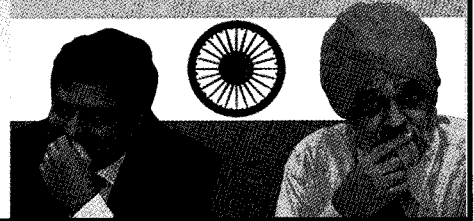


인도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



인도의 IT 소프트웨어 및 관련 서비스 산업은 최근 20%를 넘는 고도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인도의 경제성장 동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있다. 인도의 IT 산업이 일본의 자동차나 사우디의 석유와 같은 경제성장의 원동력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된다.

소프트웨어 수출 5백억불 달성

인도 소프트웨어산업 협회(NASSCOM)에 따르면 인도의 IT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산업 매출액 규모는 2006/07 연도에 전년 대비 30.7% 성장하여 396억불에 이르며, 2007/08 연도에는 24~26% 성장하여 490~500억불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GDP 기여도는 1999/2000 연도의 경우 1.2%에 불과했으나, 2006/07 연도에는 5.4%로 상승하여 IT분야의 인도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가 크게 상승하고 있다. 고용 규모는 현재 160만명 수준으로, 12억에 달하는 인도 전체의 인구를 고려할 때 동 분야의 직접고용이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160만명 가까운 인력이 상대적으로 고임금 부문에 종사하면서 중산층 이상의 소비수요 확대에 상당한 공헌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인도 IT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총 매출 규모

(단위 : 억불)

구 분	2005/06	2006/07	07/08
IT 서비스/소프트웨어(수출)	231(173)	301(229)	380~390
ITES-BPO(수출)	72(63)	95(84)	110~120
계	303(236)	396(314)	490~500

자료 : NASSCOM

고용기여도 높아 160만명

또한 인도 정부에서는 동분야가 직접 고용이외에도 간접적으로 300만명의 고용을 창출하거나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간접고용은 전력, 통신, 건설, 시설관리, 수송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IT 소프트웨어/서비스 분야가 경제 전반에 걸쳐 고용을 유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고용인구가 급속히 증가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을 받고 있다. 1990/91년의 종사자수는 불과 5만6천명 정도였지만, 10년후인 2000/2001년에는 43만명으로 늘어나면서 연평균 22.6%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2006/07년에는 160만명에 이르러 증가율이 더욱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 2010년 까지 고용인원이 약 23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 소프트웨어 산업의 급속한 성장의 주역들은 TCS(Tata Consultancy Services), Infosys, Wipro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IT 전문회사들이지만, Microsoft사를 비롯, IBM, oracle 등 굴지의 다국적 IT 전문회사들이 비용 절감, 거대한 소프트웨어 시장 공략, 우수하고 저렴한 기술 인력 활용 등을 목적으로 인도에 적극적으로 진출, 인도가 전세계 소프트웨어 산업의 허브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 글로벌 IT 기업들의 인도투자는 규모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고도화 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인도에서 R&D를 수행하는 다국적 기업들의 수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인도 R&D 센터를 보조적인 역할이 아닌 글로벌 R&D 활동의 중추로 인식하는 기업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저임금의 소프트웨어기술 인력이 발전요인

인도의 소프트웨어 산업이 짧은 기간에 급속한 성장을 보

일 수 있게 된 배경에는 우선 고등교육을 받은 인력들이 대부분 영어 사용이 가능하고, 기초과학 지식이 상당 수준 축적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저임금의 소프트웨어 기술 인력이 풍부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주 고객인 미국과 정반대에 위치하고 있어 시차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지리적 장점이 있으며, 1980년대 말 이후 인도 정부가 Software Technology Park(STP) 등 IT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 및 규제완화 정책을 펼친 점도 인도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 기여한 것이다. 이 외에도 위성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점, 미국식 개발체계, 교육훈련 제도 도입 및 세계적인 SW 품질 보증 획득 등도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요인이다.

인도 정부는 1980년대 후반부터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IT 산업 육성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왔다. 1986년 "소프트웨어 수출, 개발, 훈련 정책(Computer Software Export, Development and Training Policy)"를 발표, 규제완화 및 세계혜택을 통해 IT 산업의 성장을 촉진했다. 1990년대 들어서는 방갈로르와 하이델라바드 등지에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 파크(STPI)"를 조성하고, 독자 통신시설과 자가 발전 설비를 구축하여 인도 소프트웨어 산업이 급성장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1998년 5월 인도 정부는 "IT 및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한 국가 T/F"를 구성하였으며, T/F는 소프트웨어 액션플랜, 하드웨어 액션플랜, 장기 IT 정책 등 3개 보고서를 발표, 인도 IT 산업의 육성과 국내 확산을 권유하였으며,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인도 정부는 각종 세계혜택을 부여하고 2001년 IT Act를 제정했다.

인도의 IT 산업이 2010년 까지 수출 600억불, 고용인원 약 23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인도 IT 소프트웨어 업계의 빅 3인 Tata(TCS), Infosys, Wipro는 그동안 매출액이 연간 30% 이상 증가하는 등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여 왔다.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 경제가 최근 하강국면에 들어감에 따라 2008.1월 발표된 2007년도 4분기(10-12월) 매출액 증가율은 17~22% 수준으로 과거에 비해 다소 둔화세를 보이고 있으나, 영업내용 측면에 있어서는 과거 해외고객들의 소프트웨어를 하청 개발하는데서 탈피,

점차 독자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 해외에 판매하는 비율을 늘려가는 등 점차 고도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세계 주요 IT 기업들도 대규모 대인도 투자계획을 발표하면서 대 인도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IBM은 2007년부터 3년간 인도 콜센터망 구축을 포함한 연구개발 활동을 위해 약 60억 달러를 투자하고 현재 4만3천명 수준인 현지 고용을 3배로 늘릴 계획이다. Microsoft는 2010년까지 17억불을 투입하여 연구개발 및 교육, 생산관리센터를 건설할 계획이다. Intel 역시 연구개발과 마케팅, 벤처펀드 등에 5년간 10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Cisco Systems도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인도에 11억 달러를 추가 투자 예정이다.

고비용, 국가 간 경쟁 격화 양상

인도의 소프트웨어 산업이 지금의 성장세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이 있다. 그동안 인도 IT 산업은 숙련된 IT 전문가와 상대적으로 양호한 IT 인프라 및 규제완화정책에 힘입어 전례 없는 성장을 구가하여 왔으나 숙련인력 부족, IT 인력 임금 상승, 중국, 동유럽, 남아프리카 등의 저임금 국가들의 추격 등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IT 산업의 지속적 성장으로 숙련인력 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대졸자의 10~15%만이 IT 산업에 고용 가능하다고 추정되며 현재 추세대로라면 2010년 까지 50만명의 인력이 부족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금이 매년 15~20% 이상 상승하고 있어 최근 루피화의 급격한 평가절상등과 함께 인도 소프트웨어 업계에 비용절감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

인도의 열악한 인프라를 얼마나 빠르게 확대, 개선해 나가는냐 하는 문제도 인도 소프트웨어 분야의 지속적 성장 가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아직 컴퓨터 보급률도 100명당 1.5대 이하로 인도의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최근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인터넷 보급률도 아직 100명당 3.24명 수준이고 그나마 주요 도시에 한정되어 있는 수준이다. 전력, 교통, 주거 및 사무공간 등 사회간접자본의 낙후도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IT 산업의 핵심도시인 방갈로르 등의 경우 이미 신규 소프트웨어 업체를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상황이다.